

11월과 같은 돈가 강세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

돈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시시각각 예민하게 변하기 때문에 돈가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11월에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였던 돈가도 수출강세라는 변화에 가수요 심리가 없혀진 결과가 아닌가 보여진다. 12월에는 수출시준이 종료되는 연말을 맞게 되므로서 돈가변화도 정상적인 예측케도 하에 움직일것이다 라는 예상하에 12월중 돈가는 2,300~2,4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측면은 최근의 사육두수 통계를 바탕으로 공급과잉을 예측하고 있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1월에 이미 전년대비 약 10%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사료생산량이 12월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농장출하 예정돈도 예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수출원료돈의 품귀현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육소비가 획기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입돈육의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매 한우육의 방출개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지속세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여 11월과 같은 돈가 강세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예상돈가 2,300~2,400원은 비육돈, 모돈 포함한 전체평균 예상치로서 연초 예상보다 kg당 200~300원 상승된 전망이다. **養豚**



강 세 원 이사
(주)퓨리나코리아



12월 예상돈가
2,300~2,400원은
비육돈, 모돈 포함한 전체평균 예
상치로서 연초 예상보다
kg당 200~300원 상승된
전망치이다.

12월 평균 지육단가는 2,200원 ~ 2,400원/kg 수준으로 전망



최 동 수 팀장
(제일제당 식품본부)

육가공 업체에서는
처리두수 감축이 불가피하
므로 잉여 원료돈이 도매 시장
으로 출하되면 돈가는 점진적으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의 돈가 전망에 앞서 11월 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1월의 돈가가 국내 양돈 및 육가공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11월중에는 돈가 상승에 대한 문의전화를 하루에도 몇통화씩 받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 설명하였다.

10월 지육단가가 2,200원/kg 수준에서 11월에는 연중 소비 최저점인 동시에 출하두수 최대라는 관점에서 11월에는 돈가 하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연중 최대 처리두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9월 정부의 사육두수 발표와는 달리 실제 11월의 산지 출하두수는 10월 수준을 넘지 못하였고 이에 반해 육가공 업체들은 원료돈 입고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즉각적인 처리두수 감축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원료돈을 처리하였다. 따라서 도매 시장으로의 출하두수 감소가 돈가 상승을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쇠고기 가격상승, 돼지고기 가격하락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여 돈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육가공 업체별로 삼겹살, 갈비, 갈매기 재고가 누적되고 있으며 일본 시장으로의 수출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 돈가가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12월 돈가는 2,200원/kg~2,400원/kg 수준으로 전망된다.

공급 측면에서보다 소비측면에서의 전망이 어둡고 11월 돈가 수준에서의 육가공 업체의 원료돈 처리는 손해로 직결되며, 부득이 처분해야 하는 현 보유 재고분의 저가 판매가 가공업체의 손익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육가공 업체에서는 처리두수 감축이 불가피하므로 잉여 원료돈이 도매 시장으로 출하되면 돈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養豚**